

RabidAnce
Meets the
CREDIA
Orchestra

CREDIA MUSIC & ARTISTS

Design your *Life*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다양한 경험
클럽발코니와 함께하세요



(c)문혁은

FRIENDS

무료회원
가입비 : 무료

예매수수료 없이 예매
각종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FOC 제휴처 혜택 제공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혜택

· 공연할인 5~30%
크레디아 및 파트너사 공연예매시
(공연별 최대 4매)

SMART

일반회원
가입비 : 3만원
유효기간 : 1년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 우송 (연 4회)
크레디아/ 파트너스 기획공연 5~30% 할인
크레디아 기획공연 티켓오픈 SMS
단독 선예매,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북 제공

· 티켓오픈 SMS

티켓오픈 알림 SMS/ 단독 선예매
(크레디아 기획공연 예매시)

· 수수료 면제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렉처, 공연, 영화 등 이벤트 참여

CIELOS Club

후원회원
가입비 : 200만원
유효기간 : 10년

SMART 회원 혜택 기본 제공
연간 4회 이상의 프라이빗 행사 초대
공연 패키지 30~50% 할인 구매좌석 우위
씨엘로스 투어상품 선예매

· 매거진, 프로그램북 제공

클럽발코니 매거진 무료배송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 증정

· FOC 제휴 할인

클럽발코니 제휴 파트너사 할인혜택 제공

RabidAnce

Meets the Orchestra

라비던스 미츠 디 오케스트라

2021년 6월 27일 (일) 오후 3시 |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PM | 7:30PM Sunday, June 27, 2021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CREEDIA

라비던스

베이스, 김바울

테너, 존노

소리꾼, 고영열

뮤지컬 배우, 황건하

지휘, 이병욱

디토 오케스트라

RabidAnce

Paul Kim, Bass

John Noh, Tenor

Yeong Yeol Ko, Pansori

Gunha Hwang, Musical Actor

Christopher Lee, Conductor

DITTO Orchestra



LORD AND TAILOR

1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디토 오케스트라

호세 마리아 카노

달의 아들

라비던스, 디토 오케스트라

프란츠 레하르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존 노, 디토 오케스트라

윤학준 곡, 허림 시

마중

김바울, 디토 오케스트라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고영열, 디토 오케스트라

오상준 작곡, 한아름 작사

뮤지컬 <영웅> 중 장부가

황건하, 디토 오케스트라

김주원 곡, 윤동주 시

무서운 시간

라비던스, 디토 오케스트라

우효원 작곡/작사

이별가

라비던스, 디토 오케스트라

2

제키냐 지 아브레우

옥수수 가루 위의 작은 새

디토 오케스트라

마르치오 보사

루치

라비던스, 디토 오케스트라

바트 하워드

플라이 미 투 더 문

김바울, 고영열, 디토 오케스트라

앨런 멩컨, 스티븐 슈왈츠

바람의 빛깔

존 노, 황건하, 디토 오케스트라

이단 라이헬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

라비던스, 디토 오케스트라

권태은, 이진주 작/편곡, 윤사라 작사

테두리

라비던스, 디토 오케스트라

권태은 작/편곡

상주 아리랑

라비던스, 김도아(해금), 디토 오케스트라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Dmitri Shostakovich
Festive Overture, Op. 96
DITTO Orchestra

José María Cano
Hijo de la Luna
RabidAnce, DITTO Orchestra

Franz Lehár
Dein ist mein ganzes herz
John Noh, DITTO Orchestra

Hakjun Yoon, Rim Heo
On the way to you
Paul Kim, DITTO Orchestra

Pansori <Chunhyangga>
Saranga(Love Song)
Yeong Yeol Ko, DITTO Orchestra

Sang-Joon Oh, Han A-reum
Jangbuga(Men's Song)
from Musical <Hero>
Gunha Hwang, DITTO Orchestra

Joowon Kim, Yun Dong-ju
A Scary Moment
RabidAnce, DITTO Orchestra

Hyo Won Woo
Song of Separation
RabidAnce, DITTO Orchestra

2

Zequinha de Abreu
Tico Tico No Fuba
DITTO Orchestra

Marchio Bossa
Luci
RabidAnce, DITTO Orchestra

Bart Howard
Fly me to the moon
Paul Kim, Yeong Yeol Ko, DITTO Orchestra

Alan Menken, Stephen Schwartz
Colors of the Wind
John Noh, Gunha Hwang, DITTO Orchestra

Idan Raichel
Millim Yaffot Me'Eleh
RabidAnce, DITTO Orchestra

Tae Eun Kwon, JinJoo Lee, Sa-Rah Yoon
Edge of Love
RabidAnce, DITTO Orchestra

Tae Eun Kwon
Sangju Arirang
RabidAnce, Doah Kim(Haegeum), DITTO Orchestra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라비던스가 디토 오케스트라와 예술의전당에서 의미 있고 값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별히 주어진 오늘, 우리 노래가 여러분께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 김바울



라비던스 단독으로 예술의전당에서 데뷔를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비던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술이 되는 날까지 노래하겠습니다~

- 존노

CREDIA



라비던스 단독으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에 어울리는 무대로 화답할게요.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무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늘 겸손히 노력하는 라비던스가 되겠습니다.

- 고영열



디토 오케스트라와 라비던스의 만남에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부디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 뵈겠습니다.

- 황건하



라비던스

RabidAnce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라비던스’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3>의 준우승팀으로 베이스 김바울, 테너 존노, 소리꾼 고영열, 뮤지컬 배우 황건하 4인조로 구성되어 있다.

‘Rabid(광적인)’와 ‘Guidance(안내자)’의 합성어로 ‘광적인 음악의 안내자’라는 뜻을 지닌 ‘라비던스 RabidAnce’는 이름 그대로 흥(興)과 한(恨)을 노래하며 관객들을 크로스오버 음악의 신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이들은 클래식과 팝페라 뿐만 아니라 국악, 월드 뮤직에 이르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디스코와 팝 장르까지도 모두 소화, 그들의 강점인 경쾌하고 신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경연프로그램 이후 ‘고맙습니다’, ‘이별가’ 2개의 싱글 음원을 발매했으며, 2021년 7월 첫 미니앨범 <프리즘>을 발매한다. 장고 끝에 내놓은 앨범인 만큼 라비던스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테너, 베이스, 소리꾼, 뮤지컬 배우로서 4인의 멤버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개성을 끌어내는 데에 집중하며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려는 라비던스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음반에는 <프리즘>이라는 타이틀에서 엿볼 수 있듯 그야말로 일곱 빛깔의 각기 다른 노래들을 담아냈다.

김바울

Paul Kim



© KIMCHANI

RABIDANCE

존노

John Noh



RABIDANCE

고영열

Yeong Yeol Ko



© KIMCHANI

RABIDANCE

황건하

Gunha Hwang



RABIDANCE

베이스
김바울 리더

Paul Kim
Bass

베이스 김바울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가면무도회> 외에 오페라 <잔니 스키키>에 출연했으며 팝페라 그룹 ‘에클레시아’, ‘필로스’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2019에는 극동방송 전국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0년 7월에 종영한 <팬텀싱어 3>에서 ‘인간첼로’로 불리며 따뜻함과 세련됨을 겸비한 베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테너
존 노

John Noh
Tenor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수석 졸업하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최우수 및 장학 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오페라 가수로서 지난 5년간 20개 이상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고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훌륭히 소화해 내며 다양한 장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소리꾼
고영열

Yeong Yeol Ko
Pansori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으며 제34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상, 판소리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판소리계의 라이징 스타로 불리며 기존 전통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함께 자유롭고 쾌청하게 뻗어가는 전통 판소리의 가치를 엮어내며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융합시키고 있다. 특히, ‘피아노 병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을 만큼 서양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본인이 피아노로 작사, 작곡, 연주하며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에 원동력이 된다.

뮤지컬 배우
황건하

Gunha Hwang
Musical Actor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재학중인 뮤지컬 배우 황건하는 2016년 한세대학교 뮤지컬 콘테스트 대학/일반부 우수상, 2015년 서경대학교 뮤지컬 경연대회 장려상, 2015년 DIMF 뮤지컬 스타 페스티벌 고등부 뮤지컬 스타상, 2015년 전국 음악 콩쿠르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뮤지컬 부문 학생 및 일반부 대상 수상 및 고등부 듀엣 1등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RABIDANCE

광적인 음악의 안내자,
이들의 첫번째 난장(亂場)



라비던스 첫 번째 미니 앨범 <PRISM>
2021년 7월 7일 발매

6월 28일 '테두리' 음원 선공개

지휘 이병욱

Christopher Lee
Conductor

2018년 10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병욱은 국내외 교향악단의 지휘는 물론,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발레, 현대음악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가들이 신뢰하는 음악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 지휘자의 꿈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유학길에 올랐으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한 후, 전문 연주자 과정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귀국 후 TIMF 앙상블 수석 지휘자와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 체코 Bohuslav Martinu 필하모니 등의 객원 지휘자를 역임하였으며, 2006년에는 잘츠부르크 시에서 주최한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축제의 오프닝 공연을 지휘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유수 교향악단의 객원지휘자를 역임하였고 통영 국제 음악제, 베니스 비엔날레, 벨기에 클라라 페스티벌, 홍콩 무지카마라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음악 축제를 통해 오케스트라 음악의 앞선 리더로서 연주자와 독주자 등의 신뢰받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하였다.

탁월한 음악적 소통에 능한 그는 교향곡 지휘는 물론 다양한 제작 공연 작품의 음악감독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2007년 예술의전당 가족오페라 <마술피리>의 음악감독으로 대중에게 오페라 음악을 선보인 그는 <살로메>,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등의 대한민국 대표 오페라 작품은 물론 한국 초연 작품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이소영 연출, 2007년)>, <어린왕자(변정주 연출, 2015년)> 등의 작품에도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2008년 조직된 디토 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 및 안양 문화재단과 서초문화재단의 상주단체를 역임한 바 있으며,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슬라슬라 페스티벌(라라랜드 인 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진(창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이병욱(인천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즈지(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한 바 있다.

또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및 유키 구라모토 내한 공연의 파트너, 롯데콘서트홀 키즈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을 받았던 디토 카니발 및 아마데우스 라이브, 겨울왕국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콘서트와 같은 필름콘서트는 물론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등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더불어 최근에는 영화 <백두산>, <자산어보>의 OST 녹음에 참여하였다.

디토 오케스트라는 앞으로 패밀리 콘서트, 관객개발 사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며 보다 젊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이다.

마음껏 다르고 용감히 새로운 팀, 라비던스

팬텀싱어의 스타, 라비던스가 몰고 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개성이 강한 연주자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이뤄 내는 화음은 그만큼 더 특별했다. 매번 예측을 벗어난 레퍼토리에 도전했지만, 그 모든 영역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감탄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라비던스만의 팀워크는 음악의 진심을 응원하고자 하는 팬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 이들의 매력, 한계는 어디일까?

중립적으로는 ‘가로지른다’는 뜻일 뿐인 ‘크로스오버’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작은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겹쳐져 만들었을 한 장면에는 우선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성이 있다. 주로 검은색이고 조금 양보해봐도 무채색이다. 좁고 말쑥한 타이틀 맨 남성은 4명이면 딱 좋다. 고음부터 저음까지 골고루 나뉜 기본 좋은 음색이 빈틈없이 꽉 찬다. 음악은 어디에선가 들었지만 이렇게 들으니 새로운 정도면 좋다. 이제 ‘크로스오버 콰르텟’의 완성이다.

JTBC가 2016년 시작한 <팬텀싱어>는 이런 그림에서 출발했다. 탄탄한 발성, 안정적인 기본기를 가진 네 남성의 소리를 조합해냈다. 시즌 1과 2에 고급스럽고 클래식결한 팀들이 크로스오버의 이상을 충실하게 재연했다. 이탈리아의 가요, 올드 팝, 트렌디한 팝송이 귀를 만족시켰다. 시즌 2가 2017년 11월 끝나고 2020년 4월 시즌 3가 시작됐다. 크로스오버의 정수가 다시 한번 전파를 탈 차례였다.

아니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세 시즌의 음악감독으로 선곡과 편곡 등을 담당했던 권태은의 말을 들어보자. “<팬텀싱어> 시즌 1, 2는 성공적이었다. 정통으로 가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팀들이 ‘이 장르는 이런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의 ‘일 디보’를 선발해 정착시켰다.” 하지만 시즌 3는 예측과 달랐다. “음악이 확 바뀌어버렸다. 이제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계열로 갔다. 이스라엘, 쿠바, 그리스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권태은 감독은 “그런데 이 변화를 팀 하나가 만들었다”고 했다.

라비던스다. 청중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크로스오버에 대한 그림을 깨뜨린 팀. 팀원이 넷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크로스오버 4중창과 전혀 다르다. 멤버 구성부터 묘하다. 리더인 김바울은 성악가이고 최저 음의 베이스다. 존 노는 테너로 피바디 음대, 줄리아드 음악원, 예일대 등 미국에서 주로 노래를 했고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네모리노가 잘 어울리는 미성이다. 황건하는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재학 중인 뮤지컬 배우. 마지막으로 고영열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는데 건반을 기가 막히게 다룬다. 피아노와 함께하는 판소리 가창은 청자의 시공간 감각을 기습적으로 무너뜨린다. ‘라비던스’는 ‘Rabid(광적)’와 ‘Guidance(안내)’를 합친 합성어로 ‘광적인 음악으로 안내하겠다’는 뜻이다.

기왕 소리를 맞추기 위해 만난 넷인데, 특징이 이토록 다르다. 이쯤 되면 권태은 감독의 말이 이해된다. “<팬텀싱어> 각 시즌 결승에 올라온 세 팀씩 9팀, 한 팀에 4명씩 꼭 36명을 만났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팀들인데, 가장 특이한 팀이 ‘라비던스’라는 점은 확실하다.”

역지로 맞추지 않는다

6월, 라비던스는 녹음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 달 넘게 매일 만나 연습, 녹음, 청취, 재녹음을 반복했다. 7월에 나오는 첫 정규 앨범을 위한 이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던 팀 색깔이 더욱 확실해지는 중이었다.

“각자의 소리로 가도 맞춰질 거라고 생각한다.” 고영열이 특유의 허스키한 음성으로 확고하게 말을 이어갔다. “녹음하면서 하나로 맞추려고 노래를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각자의 소리색으로 가는 게 제일 좋더라.” 옆에서 황건하가 거든다. “맞추려고, 안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는 거다. 그게 제일 우리답다.”

앨범의 타이틀은 <프리즘>이다. 여러 색으로 쪼개지는 빛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듯, 있는 그대로 빛나겠다는 뜻이다. “녹음을 앞두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다. 전공이 다 다르고, 같은 성악 안에서도 결이 달랐다. 각자 톤이 너무 달라서 한 노래에서 어떻게 바통터치를 부드럽게 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었다.”(고영열) 소리를 일치시키는 것만큼이나 모두의 독창성을 살리는 일도 고된 작업이다. 음반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고 의견을 내고, 다시 톤을 잡고 또 부르면서 팀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녹음하며 점검해보면 모두 다른 목소리가 우리의 가장 큰 특별함이다.”(김바울)

앨범 수록곡 7곡 중 4곡을 작곡한 권태은 감독은 넷의 색채를 정확히 알고 있다. 황건하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다. “하나하나의 목소리에 맞게 음악이 나왔다.” 권 감독은 “넷이 너무나 다르고 도무지 한곡에 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일단 함께하면 희한할 만큼 듣기가 좋은, 그런 팀이다”라고 했다.

“이 노래를 한다고?”

라비던스는 <퀵템싱어> 시즌 3 경연에서 금기 없이 놀았다. 권태은은 “이 팀이 경연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야, 이 노래를 한다고?’라는 감탄이자 질문이었다”라고 전했다.

<퀵템싱어> 경연에서 라비던스는 ‘홍타령’으로 시작해 스티비 워너의 ‘어니더 스타(Another Star)’에서 라틴을 건드리고, ‘사랑한 후에’로 가요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음악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로 히브리어 노래까지 경계 없이 멀리 나갔다. ‘몽금포 타령’은 한국 음악의 넓은 확장을 이뤘다. 이상은 4명이 함께한 노래다. 들썹 부른 노래도 멀리 뻗어갔다. 존 노와 고영열은 ‘역사의 시작’이라는 노래로 쿠바 음악에 닿았고, 고영열과 황건하는 ‘티파토스(이 걱정은 무엇인가)’에서 그리스로 향했다. 금기야는 <퀵템싱어> 올스타전에서 <라이언 킹>의 노래 ‘그는 네 안에 있어(He Lives in You)’로 아프리카까지 넘어갔다.

어디든 간다는 점이 라비던스의 특징이다. 이번 앨범에도 발라드 ‘상주 아리랑’ ‘몽금포 타령’, 그리고 릭 애슬리(Rick Astley)의 1980년대 노래 ‘Never Gonna Give You Up’이 들어간다. 여기에 권 감독이 새로 작곡한 ‘라비던스 맞춤 노래’ 4곡이 더해진다. 존 노는 “우리 넷이 다 다른 것만큼이나 7곡이 전부 다르다. 어떤 곡을

콜라서 들어도 독특하다”고 했다. 그는 “한 노래 안에서도 비트를 바꿔서 쓴다. 도무지 심심하지는 않은 음반”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에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중형무진이다. 라비던스는 무대 위 마이크 앞에 그대로 곧게 서서 노래하는 법도 없다. 이리저리 뛰고 신나게 놀면서 음악의 자유를 만끽한다. “최대한 다양한 걸 하면서 크로스오버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존 노는 앞으로 남은 장르에 대해 “아직도 많다”며 손가락을 하나하나 편다. “<퀸텟싱어> 경연 때 레게도 가지고 갔는데 안 했다. 아! 동요도 안 했다. 힙합도 안 했고, 아직도 남은 음악이 정말 많다.” 황건하 또한 “경연 때 이것저것 많이 불러봤는데 못 한 노래들이 있다”며 라비던스의 넓은 경험치를 상상하도록 했다.

안 해본 음악에 대한 호기심은 그대로 그들의 정체성이다. “라비던스 정서의 기본에는 장르를 파괴하고 넘어온 과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다른 가수들도 외워서 부르면 할 수 있겠지만, 라비던스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권태은 감독) 무엇보다 멤버들은 오랜 시간 한 영역에서 노래해왔지만, 듣기만큼은 잡식성으로 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명문 음대 출신의 존 노는 옛 팝송과 힙합 마니아고, 판소리를 하는 고영열은 피아노로 서양의 음계를 통달한데다 월드 뮤직에 대한 관심으로 ‘고영열과 세계 속으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앞으로 어떤 장르를 해도 어색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 팬들을 안심시켰다. 권태은 감독 또한 이번 앨범에 들어간 ‘상주 아리랑’에서 꿩과리의 세마치장단과 피아노의 블루스를 병치하며 라비던스의 경계 허물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금껏 너무나 새로웠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워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는 방어적 우려를 섞으며 말이다.

경연 끝, 이제부터

멤버의 노래가 서로 다른 데에 만족하지 않고 음악마저 계속 변화시키는 이 팀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경연이 끝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움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팀의 장점은 경연 무대라는 형식이 사라지면서 폭발할 조짐이 있다.

스스로 뻗어나가는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압박 없이 노래할 수 있어서 좋다.”(황건하) “방송은 경쟁이어서 다른 팀을 의식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오로지 우리만의 시간이다.”(김바울) “방송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몰아붙이고 올려붙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섬세하게 드러난다. 예술성을 더해서 작품을 하고 싶다.”(고영열)

결론적으로 라비던스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은 역설적이다. 지극히 한국적이면서 무한대로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희망적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처음 보는 팀이니 말이다. 아니

나 다를까, 멤버들의 시선은 이미 국경을 넘어가 있다. “이제 데뷔한 팀이다. 차근차근 뵙어나가고 싶다”(고영열)면서도 “뉴욕 카네기홀 공연, 캘리포니아 코첼라 페스티벌 출연까지 꿈꾼다”(존노)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다. 존노는 “전 세계에 없는 노래를 할 자신이 있다. 라비던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노래들이다. 외국 청중의 반응이 궁금하다”며 눈을 빛냈다.

코로나19로 묶여 있던 이들의 행보가 바빠진다. 라비던스는 6월 27일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래식하게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데뷔하고, 8월엔 단독 콘서트를 연다. “경연에서 했던 노래, 신곡을 골고루 넣어 보여드릴 것”(황건하)이라고 했다.

라비던스는 멋있기보다는 재미있고, 정교하게 다듬기보다는 자유롭게 발산하며, 보편적이기보다는 희귀하고 특이하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을 싹싹 지워버리고 꽤기 있게 무대에 올라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음악이 얼마나 많고 넓고 좋은지 모르겠냐며 자꾸 묻는 팀이다. 라비던스는 또 도전하고 실험하며 크게 헤엄치며 논다. 이들의 유명이 어디에까지 뻗어갈까. 아마도 가까운 곳은 아닐 것이다.

CREEDIA

글 | 김호정 (중앙일보 문화팀 기자)

그 의 활 이 춤 춘 다

CELLO TANZ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 첼리스트 **홍진호** | 조윤성 트리오 |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진세 외 ————
 빌라-로보스 브라질풍 바흐, 바르톡 루마니아인 포크댄스,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라벨 볼레로, 브람스 헝가리 무곡 외

2021.7.21 WED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완벽하고 짜릿한 사운드



CREEDIA DUO

문태국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베트벤 모차르트 '마술피리' 중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WoO 46

멘델스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장조, Op.58 |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단조 Op.19

2021.11.30 TUE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ity
Summer
Festival

여름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SUMMER BREEZE

7/30 FRI

7/31 SAT

8/1 SUN

루시드폴
스텔라장

권태은의
런치송 프로젝트

박현수의
카라멜 마키아또



롯데콘서트홀

당신의 1년이 CLASSIC해집니다.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1

클래식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세상에 없던 렉처 콘서트!



7/14 태양의 노래
홍진호(첼로), 김진세(기타)
조희창(음악평론가)



10/13 사랑의 묘약
존 노의 오페라 살롱
유정우(음악 칼럼니스트)



11/10 판타지아
장유진(바이올린), 김준희(피아노)
문학수(음악비평가)



12/15 겨울 나그네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일리야 라쉬코프스키(피아노)
황지원(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 티켓 전석 38,000원 | 롯데콘서트홀

CREDIA SEASON 2021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Dong-Min Lim & Dong Hyeok Lim Duo Recital

3.3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양인모 리사이틀 <현의 유전학>

Inmo Yang <the Genetics of Strings>

3.13 (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Believe in Magic

Disney In Concert: Believe in Magic

4.10 (SAT) - 4.11 (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정명훈 피아노 리사이틀

Myung-Whun Chung Piano Recital

4.28 (WED) & 4.30 (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차르트 레퀴엠

Mozart Requiem

4.29 (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Hopeful Tomorrow>

Yuhki Kuramoto concert <Hopeful Tomorrow>

6.11 (FRI) 롯데콘서트홀

라비던스 미츠 디 오케스트라

RabidAnce Meets the Orchestra

6.27 (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클래식 브런치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1
CREDIA CLASSIC CLUB
5회 공연 패키지 170,000원 | 롯데콘서트홀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홍진호 <첼로 탄츠>

Jinho Hong <Die Cello Tanz>
7.21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썸머브리즈

Summer Breeze
7.30 (FRI) - 8.1 (SUN) 롯데콘서트홀

조성진 파크콘서트

Seong-Jin Cho Park Concert
8.27 (FRI) - 8.28 (SAT)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2021 Disney In Concert
9.2 (THU) - 9.3 (FRI)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9.7 (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욤 크레머 바이올린 리사이틀

Gidon Kremer Violin Recital
10.6 (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Yo-Yo Ma Cello Recital
10.24 (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태국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Taeguk Mun & Dong Hyeok Lim Duo Recital
11.30 (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조수미 & 이무지치

Sumi Jo & I Musici
12.25 (SAT) - 12.26 (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Richard Yongjae O'Neill <The Gift>
12월 중

크리스마스 콘서트 - 유키 쿠라모토와 친구들

Christmas Concert: Yuhki Kuramoto and Friends
12월 중



@credia_official



@crediaofficial



credia.tv



@크레디아

www.credia.co.kr

라비던스 미츠 디 오케스트라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